

김도영 “1루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절대 안할게요”

KIA 스프링캠프 참가

“부상은 나만의 문제 아니더라 초반부터 팀 분위기 만들겠다”

‘반성의 시간’을 보낸 김도영이 2024시즌 개막에 맞춰 칼을 간다.

KIA 타이거즈 김도영은 2023시즌 불러코스터를 뒀다. SSG 랜더스와의 개막 2연전에서 뜨거운 타격을 선보이면서 기본 좋은 출발을 했던 김도영은 시즌 두 번째 경기만에 발가락 골절 부상을 당했다.

김도영은 긴 재활의 시간을 보낸 뒤 6월 23일 KT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렀다. 부상 복귀 후에는 그라운드에서 꼬박꼬박 오르면서 지난 시즌 총 84경기를 소화했다. 103개의 안타와 7개의 홈런을 기록하면서 타율 0.303, 47타점을 만들었고 25개의 도루도 성공시켰다.

지난 시즌 활약을 바탕으로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을 통해 태극마크도 달았지만, 이 대회는 악몽으로 끝이 났다. 김도영은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2-2로 맞선 연장승부차기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서 내야 땅볼을 만들었다. 병살타를 막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한 김도영은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다가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좌측 엄지 중수지절골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및 견열골절로 인해 병합술을 받았다.

한 해를 부상으로 시작해 부상으로 끝낸 셈이 된 만큼 김도영에게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 시즌이

됐다.

김도영은 “한일전에서 병살타를 치고, 부상까지 당했다. 반성 많이 했다”며 “이제 아프면 내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된다. 다친다는 것 상상도 안 하고 안 다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부상 생각해서 100%로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부상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 1루 슬라이딩 같은 것은 안 하려고 한다. 부상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부상에 많은 게 가려졌지만 소독이 없던 시즌은 아니었다. 프로 두 번째 시즌, 김도영은 그라운드에서 익숙해졌다.

김도영은 “부상은 있었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끝까지 시즌을 잘 마무리한 것은 좋았다. 올 시즌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며 “처음에는 잘될 때와 안 될 때가 있었다. 후반 되니까 분명 잘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게 있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안 좋은 것도 아닌 그런 감을 유지하고 끝까지 했던 게 있었다. 프로 선수가 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기대감 속에 시작했던 프로 첫 시즌에는 확실한 자리가 없었던 만큼 ‘보여 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었다. 지난 시즌에는 3루에서 꾸준히 역할을 하면서 여유를 얻었다.

김도영은 “1년 차 때는 잘 안 돼도 돼야 하고, 안 좋아도 어떻게든 잘 되게끔 만든 느낌이었다. 지금은 여유가 생겼다”며 “시즌 치르면서 바꾼 거는 딱히 없다. 준비했던 대로 품도 안 바꾸고 했다. 올 시즌에도 그 품으로 갈 것 같다. 성과가 많았다. 루틴 같은 것도 생겼고, 배트 스타일도 알았다. 어떤 배

트가 잘 맞는지, 맞는 모델도 찾았다”고 설명했다.

성과가 많았던 두 번째 시즌, 2024년 세 번째 시즌에 ‘작은 변화’는 있다.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한 김도영은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변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김도영은 “작년에 좋았던 부분들 무조건 가져갈 것이다. 지난 시즌 치르면서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있었다. 타격할 때 스탠스를 스프링캠프 기간에 짧게나마 수정하고 싶다”며 “타석에서 서 있는 자세가 불편하고 힘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범호 코치님과 이야기했는데 좋았을 때 보면 (스탠스가) 넓지는 않은데 오버해서 하니까 계속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풀시즌을 하려면 뭘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하니까, 올해 편하게 치려면 이 부분을 준비해야 한다”며 “올 시즌 기록에 대한 목표는 없다. 아직 풀타임 못 뛰었지만 기록을 목표로 잡기에는 건방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기록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는 없지만 하나 간절히 바라는 목표는 있다. 바로 KIA의 ‘가을잔치’다.

김도영은 “지난 시즌 순위 싸움을 하면서 팀이 무조건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다. 만화 같은 것 보면 주인공이 크게 지고 있어도 끝은 이길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었다. 6위에 있어도 끝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게임 차가 멀어졌다”며 “무조건 포스트 시즌 간다고 생각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팀 타격이 좋았던 그 기간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올해는 초반부터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함평 헬린저스필드에서 재활 훈련 중인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



긴급 투입 김준홍 손흥민과 스트레칭 십자인대 파열로 대표팀에서 소집해제된 골키퍼 김승규를 대신해 훈련 파트너로 대표팀에 합류한 김준홍이 23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주장 손흥민과 스트레칭을 함께 하고 있다. /연합뉴스

KPGA 태국에서 예열...내일 윈터 투어 개막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가 2024년 시즌을 앞두고 태국에서 예열을 시작한다.

KPGA 투어는 오는 25~26일 윈터 투어 1회 대회를 태국 방콕 피닉스 골드 방콕 골프클럽(파 70)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 달 1~2일 같은 장소에서 윈터 투어 2회 대회도 열린다.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열리는 윈터 투어 대회당 총상금은 1억원이고 우승 상금은 1천 500만원이다.

윈터 투어 대회에 앞서 1회 대회 예선은 23~24일 이틀 동안 같은 장소에 치러진다. 예선은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이다.

2회 대회 예선은 30~31일에 치른다.

윈터 투어는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겨울 훈련을 하는 KPGA 코리안투어 선수들이 겨울 훈련 성과를 점검하고 실전 감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이소미·성유진·임진희 LPGA 데뷔전

26일 개막 드라이브 챔피언십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총상금 175만 달러)이 26일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튼턴의 브레이튼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풀 필드(출전 선수 120명) 대회다.

지난주 열린 2024시즌 개막전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십은 최근 2년간 LPGA 투어 대회 우승자에게만 출전 자격이 주어져 총 35명만이 뛰었다.

지난해 12월 LPGA 투어 웰리파이(Q) 시리즈를 통과한 이소미, 성유진, 임진희가 신인 데뷔전을 치른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5승을 쌓은 이소미는 Q 시리즈에서 호주 교포 로빈 최에게 3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랐다.

KLPGA 투어 3승의 성유진은 공동 7위, 지난해 KLPGA 투어 다승왕(4승) 출신의 임진희는 공동 17위로 합격증을 손에 쥐었다.

세 선수 모두 미국 대회 출전 경력이 있지만 투

어 신인 자격을 얻은 뒤로는 이번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이 첫 경기다.

성유진은 작년 4월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연장전 끝에 준우승한 경험이 있고, 이소미는 2019년 BMW 챔피언십에서 공동 4위를 차지한 바 있다.

LPGA 투어 2부 리그인 엡슨 투어에서 승격한 강민지도 데뷔전을 치른다.

강민지는 지난해 엡슨 투어 22개 대회에 출전해 톱10에 8차례 진입하는 등 상금 5위(11만2342달러)에 올라 LPGA 투어 출전권을 따냈다.

이 대회에는 이들을 포함해 유해란, 양희영, 김아림, 전인지 등 한국 선수 16명이 출전한다.

세계 랭킹 3위 쉐린 부티에(프랑스)가 타이틀 방어에 도전하는 가운데 세계 1위 릴리아 부(미국), 2위 인뤼닝(중국), 4위 넬리 코다(미국) 등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이 대회는 작년엔 미국 애리조나주 골드캐니언의 슈퍼스티션 마운틴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가 올해 개최지가 바뀌었다. /연합뉴스



광주FC로 이적한 김진호가 광주문학원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강원서 김진호 영입...수비 강화

지난해 K리그1 3골 2도움

광주FC가 수비 강화를 위해 강원FC에서 김진호(24)를 영입했다.

키 178cm·체중 74kg의 김진호는 양발을 활용하며 저물적인 돌파와 대인방어가 뛰어나다. 김진호는 기습적인 원발슛으로 특점력도 가지고 있어 광주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운대 출신인 김진호는 1학년 때부터 많은 경기에 나섰고, 주 포지션인 사이드백뿐 아니라 윙 포워드를 오가며 3골을 만들면서 U리그 3권역 우승에 기여했다.

2022년 강원FC 유니폼을 입은 김진호는 강원 FC B팀을 시작으로 프로 첫해 K리그1 28경기에서 3골 2도움을 기록했다. 신인이 패기를 앞세운 인상적인 활약으로 8월 이달의 영플레이어상도 수상했다.

김진호는 지난 시즌에는 25경기에 출전해 2골 2도움을 장식했다.

김진호는 “광주라는 좋은 팀에 오게 돼 영광이다. 이정호 감독님, 코치님들께 축구를 배울 수 있어 기대된다”며 “하루빨리 적응해서 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팬들의 기대에 충족시키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